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의 한국기업의 재편성*

- 기업구조조정의 현황과 평가 -

곽 수 일**

《目 次》

- | | |
|--------------------|-----------------|
| I. 서론 | IV.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
| II.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경제 | V. 결론 |
| III. 유형별 기업구조조정 현황 | |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재편성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과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경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평가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을 크게 기업퇴출, 대규모 사업교환,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약정, 기업구조개선 약정, 기업개선 작업, 법정관리 및 화의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구조조정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유형별 사례를 정리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본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의 사례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개선방안과 기업 구조조정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경제

한국은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경험하고 경제, 사회 전반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에 걸쳐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그러한 외환·금융·통화 위기에 어떠한 경위로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2.1 한국경제의 버블과 아시아 통화위기

아래의 <표 1>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의 경제지표로서, 이 표에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주목해 보면, 한국이 1997년 12월에 한국이 어떠한 경위로 통화위기를 맞이 하게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94년도, 1995년도의 한국의 GDP성장율은 각각 8.3%, 8.9%로서 상당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당시 8%, 9%라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 온 반면에, 1997년을 중심으로 1994년, 1995년, 1996년을 돌이켜 보면, 한국 경제에 버블(bubble)이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버블에 의해서 1994년도에는 38억달러 적자, 1995년도에는 85억달러 적자, 1996년도에는 무려 23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화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1996년도의 외화보유고 332억달러에서 1997년 12월에는 204억달러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997년의 204억달러의 외화보유고는 공식적인 발표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많이 줄었을 때의 한국의 외화보유고는 30억달러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즉, 아래의 표에서는 1997년의 외화보유고가 200억달러 정도로 표현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의 IMF의 특별금융지원이 없었다면 당시의 외화보유고 30억달러조차 마이너스가 되어 한국은 국가부도에 직면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즉, 1995년의 한국경제의 버블 이후에 찾아온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는 한국경제에 한 층 더 큰 충격을 안겨 준 것이었다.

<표 1>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 지표들(1994년 ~ 2002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GDP성장율(%)	8.3	8.9	6.8	5.0	-6.7	10.9	9.3	3.0	
경상수지(백만달러)	-3.867	-8.507	-23.005	-8.167	40.365	24.477	12.241	8.239	6.677
외화보유액(억달러)	257	327	332	204	520	740	962	1,028	1,214
소비자물가상승율(%)	6.3	4.5	4.9	4.4	7.5	0.8	2.3	4.1	2.7
실업율(%)	2.4	2.0	2.0	2.6	6.8	6.3	4.1	3.7	

2.2 외환, 금융, 실물순으로 위기 전개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미 1994년 이래로 경상수지 악화로 실물경제의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데 동남아 외환위기가 파급되었고, 더욱이 외환위기 당시는 정권 교체기이었던 관계로 국가 리더십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위기대체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에 일어났지만, 실제의 그 원인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그 경제성장 속에서 기업들의 엄청난 확대 때문에 외화보유고가 부족해지면서 금융이 흔들리고 금융이 흔들리면서 이자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서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아 통화위기가 한국 사회에 파급된다. 이는 우선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고, 둘째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셋째 이것이 기업경영의 실물 위기로 확대되고, 넷째 사회에 전체적으로 위기를 가져오는, 외환, 금융, 실물, 사회의 순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이 가해져 부실,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등 한국의 문제들이 모두 노출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고, 생활고, 중산층 침하, 생계형 범죄의 증가 등의 사회의 극심한 변화도 야기시켰다.

다음 <표 2>의 1998년부터 2001년 말 사이의 금융기관의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은행이 5개 해산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13개의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수가 550개 줄었고 이를 위해 공적자금 155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1998~2001년중 금융기관¹⁾수의 변화내용 (단위 : 개)

구분	은행	종금사	증권사	투신 (운용)사	생보사 2)	손보사	상호저축 은행	신협	계
1997년말 (A)	33	30	36	31	31	14	231	1,666	2,072
퇴출 ³⁾ (-)	5	22	6	6	7	1	95	305	447
합병 (-)	8	6	1	1	5	-	26	102	149
신설 (+)	-	1	17	6	-	1	12	9	46
2001년말 (B)	20	3	46	30	19	14	122	1,268	1,522
B-A	-13	-27	+10	-1	-12	0	-109	-398	-550

2.3 IMF 자금지원과 기업구조 개편의 시작

1997년 12월 말 한때는 한국경제가 국가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1997년 12월 24일

- 1) 외국금융기관 한국내 지점 제외
- 2) 우체국 보험 제외
- 3) 계약이전, 인허가 취소, 인허가 취소 신청, 파산, 해산

IM(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조기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1998년 1월 29일 뉴욕에서의 외채협상이 타결되어 채무상환유예를 받고, 1998년 4월 8일에는 한국정부의 채권을 국제시장에 발행(외평채 발행)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 대외여건이 호전되어 1998년 4월 말에는 가용외환보유고가 300억달러를 상회 할 정도로 외화보유고를 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IMF특별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IMF의 처방이 한국경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즉 세계 금융시장 변화, 선진국의 정책결정 등이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를 요구하는 압력도 강화되었다.

1998년 6월부터 많은 기업과 은행이 퇴출되며 기업구조의 개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1998년 6월 18일에 가장 먼저 대기업 55개사가 퇴출당하고 6월 29일에는 은행 5개가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었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구조조정도 상당폭 진전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24일에 IMF국제금융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환율은 800대 1에서 2,000대 1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으며, 금리는 오일쇼크 이후 최고의 금리인 연31%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상장기업들이 최초로 경상이익에서 적자를 보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기업들이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하고, 또한 1998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업율인 7.4%가 기록된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1997년도에 한국의 10대 기업중에 하나인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한국의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소위 대마불사설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한국의 10대 기업들이 가장 수익있는 사업들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 예로 쌍용제지가 자기의 회사를 P&G에 아주 헐값으로 매각을 해 버린것을 들 수 있다. 또 삼성그룹에서도 사상최초로 월급을 깎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지배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점점 기업을 재편성하는 전략들이 쓰이게 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대응을 하면서 드디어 기업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Ⅲ. 유형별 기업구조조정 현황

한국 기업의 재편성과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현황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기업퇴출판정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첫번째는 기업퇴출 판정을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4년 4월 14일에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1998년 6월 4대 계열 소속 중 부실징후 55개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별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퇴출판정조치 후 청산·매각·합병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아래의 주석과 같이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55개사를 정리했다. 이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는 정부가 채권은행별로 구성한 것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퇴출판정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이다. 퇴출판정을 받은 55개 기업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아래의 표에서 보면 청산 27개사, 합병 11개사, 매각 13개사, 법정관리 등 기타 4개사, 총 55개사가 퇴출판정을 받아 해산되었다.

〈표 3〉 기업 구조조정 과정

	5대 계열		6대~30대 계열		기타		업체 수
	계열	업체	계열	업체	계열	업체	
청 산	4	8	8	15	4	4	27(49%)
합 병	3	6	2	4	1	1	11(20%)
매 각	3	6	2	3	3	4	13(24%)
기 타			1	1	3(법정관리)		4(7%)
업체 수	20		23		12		55(100%)

3.2 워크아웃⁴⁾

기업구조조정의 두번째 방법은 워크아웃(Work Out)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영어에서 유래된 일종의 기업개선작업의 하나이다. 즉, 채권은행들이 부도를

4) 원래는 도산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경제위기 중에 매스메디어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7개의 기업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재편성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워크아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갚아나갈 것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자금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채권상환유예를 통한 부도유예조치와 협조용자, 출자전환까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실은 채무기업의 기존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지 않겠다는 협약을 한다든지 채무상환을 연기해 준다든지 혹은 채권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는 등 기업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생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시작된 것이다.

1998년 6월, 83개의 기업이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중 47개 기업은 조기정상화(워크아웃 졸업 31개사, 자율추진 16개사),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15개사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조기정리(청산관리 진행 8개사, 법정관리 신청 7개사), 그리고 1999년 대우그룹 도산에 이은 대형 부실기업 속출에 따라 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되어 2002년 9월 말 현재에도 워크아웃이 계속 되고있는 기업이 21개사가 있다. 21개사 중 10개 회사는 이미 워크아웃이 종료되었거나 자율 추진되면서 일종의 건전기업으로 재편성되었고, 2003년 중에도 4개 기업이 워크아웃 종료되어 건전기업으로 분류 될 것이다. 현재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 매각이 되거나 혹은 자력으로 정상화 할 것인데 대표적인 회사로 쌍용자동차를 들 수 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워크아웃이 추진되는 회사가 7개사 있으며 아래의 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표 4〉 워크아웃 추진현황

워크아웃 대상업체					워크아웃 결과		
워크아웃 신청	시작전 탈락	합 병	회사분할	계	졸업	중 단	현 재
104	8	17	4	83	47	15	21

주 : 1) 2002년 9월말 현재

2) 워크아웃 졸업기업은 자율추진 16개 기업 포함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 방안' 2002. 9. 18

〈표 5〉 잔존 워크아웃기업(21개사) 조치 계획

조기 정상화 (14개)	200년중 (10개)	졸업(4) : KP케미칼(구 고합), 세풍, 미주제강, 대우캐피탈
		자율추진(6) :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자동차 판매, 남선알미늄, 신동방, 동국무역
	2003년중 (4개)	졸업(2) : 새한미디어, 동방생활산업
		자율추진(2) : 한창, 새한
계속추진 (7개)	매각, 자체정상화 등 추진 : 쌍용자동차, 대우정밀, 대우전자, 충남방직, 쌍용건설, 갑울, 오리온전기	

3.3 Big deal (대규모 사업교환)⁵⁾

기업의 구조조정 세번째 방법은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로서 간단히 설명하면 정부의 주도하에 유사업종의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합쳐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우선 9개 업종(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 정유,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자동차, 가전)의 16개 사가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의 표는 이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6〉 업계 재편의 대표적 사례

업종	업계 재편 추진 현황	결과
반도체	·LG반도체→현대(하이닉스 반도체)	부실화→부분 매각·합병추진
자동차	·기아→현대 통합 ·대우 매각 미결	4사 체제→3사 체제 대우 매각 협상 진행 중
철강	·강원산업·산미특수강→인천제철(INI)	한보 매각 미결
석유화학	·대림 한화 NCC통합, 사업교환 ·삼성 현대 통합 및 현대 매각 추진	통합은 성공, 경영권 마찰 무산, 현대 처리문제 잔존
정유	·한화에너지→현대정유로 통합	5사 체제→4사 체제
합섬	·삼성 SK케미컬 화섬산업 통합	휴비스 출범, 재편 후 흑자화
기계 · 중공업	·한중 대우 삼성 선박엔진 사업통합 ·현대정공 대우 철차 통합 ·삼성 현대 대우 항공사업 통합	HSD 설립 한국철자 설립 과다부채로 외자유치에 난항
조선	·한라중공업→현대에 위탁경영 ·대우중공업→기계, 조선 분리	한라중공업 경영 정상화 조선부문(대우) 경영 정상화

주 : 피인수기업→인수기업, -는 통합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도하에 LG반도체가 현대반도체에 흡수·합병 되었다. 즉 LG반도체에 있는 모든 시설과 인력 등 경영자원을 현대반도체에 흡수·합병시킨 것으로 이 반도체부문의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현대반도체라 불리지 않고 하이닉스반도체라고 불리우는데 현재의 하이닉스반도체는 부실기업으로 한국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 만약 당시 현대반도체를 LG반도체에 합쳤다면 한국에서 두번째로 좋은 반도체회사가 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LG반도체가 현대반도체

5) 기업간의 대규모 사업부문의 교환을 이야기한다. 한국의 경제위기 중에 등장하여 한국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간에 대형사업을 상호 교환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 흡수·합병된 결과 한국경제에서 하나의 좋은 반도체회사가 없어서 버린 결과가 되었다. 반면 자동차 부문에서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통합이 되면서 아주 성공적인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합침으로서 한 회사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과점현상도 일어났다. 또 한 철강 부문에 있어서는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이 인천제철에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로 흡수·합병 되어 버렸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대림석유화학이 한화석유화학과 합쳐 여천NCC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내었고, 정유 부문에 있어서는 한화에너지를 현대정유와 합쳐버렸으며 합성섬유 부문에서는 삼성과 SK케미칼이 화섬산업으로 통합되었다. 선박엔진부문에서는 한국중공업, 대우, 삼성선박이 합쳐져 하나의 선박엔진회사가 되었고, 철도차량 부문에서는 현대정공과 대우철도차량이 합쳐 한국철도차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내었다. 항공산업 부문에서는 삼성항공, 현대항공, 대우항공이 합쳐 하나의 한국항공회사로 통합되었으며 조선 부문에 있어서는 한라중공업이 현대에 경영을 위탁하게 된다. 그리고, 대우중공업이 기계부문과 조선부문으로 두 개의 회사로 갈라져 버린다.

이와같은 Big Deal(대규모 사업교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의 대기업을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공급과잉과 중복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3.4 기업 개선 작업: 6~64대 계열 중 독자회생이 어려운 16개 계열기업군

네번째 기업구조조정 방법은 기업개선작업이다. 다음의 <표 7>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기업 개선을 위해 매각, 청산, 합병, 법정관리, 존속되는 등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293개 기업 중에서 존속되는 기업은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은 매각, 청산, 합병, 법정관리 되는 등 기업개선작업이 이루어지 것을 아래의 표에서 볼 수가 있다. 거듭되지만 아래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들도 과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었다.

3.5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다섯번째 방법은 이미 위에서 기술한 바 있는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이다. 1999년에 채무회사와 한국의 대기업들과 금융기관 간에 재무 구조 약정을 맺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4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

〈표 7〉 기업개선작업 대상계열 정리방침

계열명	계열사 수	존속	정리방침			
			매각	청산	합병	법정관리
거 평	21	1	3	10	-	4
세 풍	6	1	-	3	-	-
강원산업	27	-	10	1	12	-
아 남	15	3	7	1	-	2
쌍 용	27	6	7	2	10	-
갑 을	13	-	4	2	2	3
벽 산	16	-	8	-	5	-
신 호	26	-	9	6	5	3
동국무역	13	-	5	3	1	1
대 우	41	-	48	4	7	-
고 합	13	-	6	2	-	1
진 도	15	-	5	3	4	-
우 방	14	-	5	3	5	-
동 아	20	1	8	6	4	5
신 원	18	-	4	6	-	-
대구백화점	8	-	4	-	-	2
계	293	12	133	46	55	21

3.6 법정관리 및 화의

여섯번째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게 되면 법정관리 및 화의인데 6~64대 기업집단 중 워크아웃 탈락 그룹 및 기업개선작업 실시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15개의 회사도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구조개선이 계속 되도록 여섯번째 방법인 법정관리 및 화의가 취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기업의 재편성은 주로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즉 정부 주도에 의한 기업의 재편성이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적 부진에 따라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된다.

IV.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기업의 유형별 구조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재편성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4.1 긍정적인 측면

4.1.1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 축소 등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기업 재편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첫번째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한 것이다. <표 13>에서 1997년의 부채비율이 평균 400%이었지만 2002년 3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174%까지 내려가 있다. 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표리관계에 있지만 1997년에 자기자본 비율도 20%에서 2002년도 3월에는 36%까지 높아졌다.

<표 8> 제조업 부채비율 추이

연도	'97	'98	'99	'00	'01.말	'02.3월 말
부채비율	396.3	303.0	214.7	210.6	182.2	174.4
자기자본비율	20.2	24.8	31.8	32.2	35.4	36.5
금융비용/매출액	6.4	9.0	6.9	4.7	4.2	
이자보상비율(%)	129.1	68.3	96.1	157.2	132.6	245.5

주 :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 100

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100

3)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4) 금융비용/매출액

 순금리부담율=(지불이자 수취이자+수취배당금)/매출액

5)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Interest Coverage Ratio = (영업이익+수취이자+수취배당금)/지불이자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표 9> 제조업 차입금 의존도 추이

연도	80-89	90-99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미국(01)	일본(00)
차입금의존도(%)	44.3	46.6	54.2	50.8	42.8	41.2	39.8	27.4	29.7

주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회사채)/총자본

4.1.2 수익성 및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기조 확산

이와같이 부채비율이 감소되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또 기업들의 수익성도 향상된 것을 다음의 표가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0〉 제조업 수익률 추이

연도	'97	'98	'99	'00	'01	'02. 1/4
매출액경상이익률(%)	-0.3	-1.9	1.7	1.3	0.4	8.0
이자보상비율(%)	129.1	68.3	96.1	152.7	132.6	245.5

주 : 매출액경상이익률 = 영업이익 - 영업외수지 /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금융비용

4.1.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도입, M&A 및 관련제도 도입 등을 통한 상시 기업 구조조정 계기 마련

4.1.4 사업매각, 계열사 합병 및 청산 등 사업부문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 기회 제공

긍정적인 평가의 마지막은 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4.2 부정적인 측면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실기업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량한 기업을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해 버리는 일도 있으며,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기업가 정신을 퇴조시켰다는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4.2.1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미흡

- ① 대규모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었고, 우량기업의 헐값매각, 과잉규제로 인한 투자자부진 등으로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손상되었다.
- ② 기업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직접적인 규제를 동원한 탓에 투자위축 및 기업가정신을 퇴조시켰다. 부채비율규제, 내부자거래조사, 출자총액 제한 등 위기극

복 차원에서 취해진 규제가 상존하여 투자여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들마저도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설비투자도 위축되었다.

〈표 11〉 설비투자 추이

연도	'91~'95	'96	'97	'98	'99	'00	'01	'02
전년대비증감률(%)	11.5	9.1	-8.7	-38.8	36.3	35.3	-9.8	-2.0

주 : '02 전망치는 산업은행 '설비투자 계획 조사' 결과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그리고 매출부진에 따른 제조업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연되었다.

〈표 12〉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연도	'97	'98	'99	'00	'01
매출액영업이익률(%)	8.3	6.1	6.6	7.4	5.5

참고 : 2001년 중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61년 통계편제 이후 최저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위축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영 등 국제화 전략이 후퇴 되었다.

〈표 13〉 해외직접투자 추이

연도	'96	'97	'98	'99	'00	'01
금액(백만달러)	6,522.4	5,903.7	5,238.4	4,654.4	4,946.6	4,527.1
전년대비증감률(%)	31.6	-9.5	-11.3	-11.2	6.3	-8.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총신고액 기준)

- ③ 단기수익 위주의 내수판매 및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 하였으며 위험회피 전략에 따른 대규모 장치산업 기피로 주력산업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자본·기술·인력 등 계열사 간 경영자원 공유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발휘를 제한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4.2.2 인위적·총량적·직접적 규제 강화로 시장기능의 정확과 발전을 저해

①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 지연

정부가 워크아웃, 부실기업처리 등을 주도하고 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하여 부채비율 일률규제, 상호채무보증 금지 등 직접적인 규제가 지속되고 업종 전문화에 따른 독과점 시장구조를 초래, 동종 산업 내 기업 간 기술연구 및 개발 등 경쟁 인센티브의 축소로 경쟁력의 약화도 초래하게 되었다.

② 정부주도의 노사정위원회⁶⁾ 운영으로 노사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부진

③ 구조조정이 대기업 차별규제로 작용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 임의적인 부당 내부거래소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시장개방, 외국인지분 증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외국기업과 역차별 정책이 지속되었다.

4.2.3 금융시스템 개혁과 민영화, 노동 개혁, 공공개혁 등 여타부문의 개혁성과 부진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

〈표 14〉 4대 부문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평가

부문	매우진전	다소진전	다소 미흡	매우 미흡
기업	12%	68%	20%	0%
금융	35%	59%	6%	0%
노동	0%	32%	59%	9%
공공	3%	41%	41%	15%

자료 : 전경련, 한국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외국인기업 인식조사 결과, 2002.4

V. 결 론

경제위기를 위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그 유형별로 평가한 결과, 한국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과 효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많은 금

6) 노사문제를 노동과 기업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과 기업에 아울러 정부도 참가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 자체가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한다고도 한다(출처: <http://www.lmg.go.kr/kor/index2.htm>).

정적인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앞으로 기업의 재편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서 기업자율의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노력에 의한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 중점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중점으로 정책기조 전환하고, 정부주도 구조조정에서 기업자율의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내부거래조사, 상호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M&A활성화, 금융기관 민영화·자율화를 통한 심사기능 강화 등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금융, 세제, 노동, 공정거래 등 구조조정 저해제도의 개선과 정리해고 요건 및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규정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 원칙의 정립과 실천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재편성과정을 금융부분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기술해 왔다. 물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부분과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금융감독위원회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 방안' 2002. 9. 18
2. 삼성경제연구소, "기업부문 구조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2002. 2
3. 삼성경제연구소, "IMF 1년, 기업경영의 변모와 과제," 1998. 12
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과제," 2002. 10
5. 전경련, 한국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외국인기업 인식조사 결과, 2002. 4
6.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8.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2. 5
9. "아버이 날이 더 서러운 '버려진 세대' 50대 절반이 사실상 실직," 박중현(조선일보), 2003. 5. 8
10. "외환보유 1,236달러 '세계 4위' 한국, 국제금융시장 '큰손'으로," 고종원(조선일보), 2003. 5. 9